

엘살바도르 원조 동향 및 향후 추진 방향

김 은 섭 KOICA 중남미팀장

목차

- I. 들어가는 말
- II. 일반개황
- III. 역사
- IV.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황
- V. 국제사회의 엘살바도르 원조동향
- VI. 우리정부(KOICA)의 엘살바도르 원조동향 및 사례
- VII. 대 엘살바도르 국제협력사업 추진방향
- VIII. 맺음말

I. 들어가는 말

지금으로부터 1100여 년 전 마야문명이 번성하였던 중앙아메리카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은 세계로 남아 있다. 비행시간만도 20시간 이상 걸리는 중앙아메리카는 거리만큼이나 심리적으로도 멀게만 느껴지는 지역이다.

중미라고 하면 보통 벨리즈,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8개국을 일컫는다. 대부분 영토, 인구, 소득수준 면에서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하는 소국가들로 이뤄진 지역이다. 영토 면에서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보다 작은 나라들이다. 인지도 8개 국가를 모두 합쳐야 겨우 5000만 명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모이다. 또한, 1인당 국민소득은 평균 4000달러 미만이다. 파나마가 7000달러 수준으로 가장 높고, 니카라과가 1000달러 미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중미의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보면, 저지대, 온대, 고산지대 등 다양한 기후대가 분포되어 있으며,

허리케인, 화산폭발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편이다. 원주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원주민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며, 주요 수출품으로는 바나나, 커피, 면화, 사탕수수를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미는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경제적 측면에서 양 대륙을 두루 공략할 수 있는 교두보로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변함없이 한국을 지지해 온 전통적 우방국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다.

무엇보다도 중미국가들 중에서 엘살바도르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로서 손꼽을 수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와의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돈독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II. 일반 개황

엘살바도르는 중미 남서쪽에 위치하여 태평양 해안을 마주하고 있으며, 중미국가 중 유일하게 대서양과 접하지 않고 있다. 중미에서 가장 작은 나라로 우리의 경상남북도를 합친 면적(29,546km²) 보다 작으며, 중미 전체 면적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도 600만 명 남짓 밖에 되지 않는다. 1인당 국민소득은 3800불 정도로 중미국가들 중에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수출품목도 1차 생산물인 커피와 설탕, 새우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림 1〉 중미지도



국토, 인구, 소득수준 등에서는 비록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는 국가이지만, 엘살바도르는 1962년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든든히 지지해 주고 있는 전통적 우방국이다.

무엇보다도 엘살바도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와 유사한 점이 많은 국가이다. 1980년부터 1992년까지 12년간 내전을 겪었으며, 좁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기에 인구밀도가 중남미에서 최고 수준이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며, 관광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다.

반면에, ‘중미의 유테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민성이 근면성실하고,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매우 높다. 과거 우리나라가 인적자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오늘날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달성했듯이 엘살바도르도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기를 열망하고 있다.

III. 역사

중미국가들은 벨리즈,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을 제외하면, 국가 성립 이전에는 동일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미 역사는 크게 신대륙 발견 이전, 스페인의 정복 및 독립, 현대사 등으로 나뉘 볼 수 있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 중미 5개국은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 이전에는 마야문명지였다. 이후 콜럼버스가 4번째 신대륙 탐험시 온두라스에 도착, 파나마까지 탐사한 뒤 3백년 가까이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으며, 이후 나폴레옹 전쟁 종식 후 프랑스 대혁명, 미국의 독립 등 신자유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1821년에 독립하였다. 이후 1823년부터 18년간 중미연방공화국을 결성하였다가, 1841년 1월 각각의 독립국가를 수립하게 되었다.

엘살바도르의 현대사는 군부 쿠데타와 독재로 점철되었다. 특히, 1980년부터 1992년까지 12년간 7만명의 생명을 앗아간 정부군과 좌익계릴라간의 내전이 있었다. 1992년 유엔의 중재 하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였지만, 내전이 남긴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고 있다.

내전 기간인 1989년부터 20년 가까이 집권을 했던 국민공화연맹당(ARENA)은 국영텔레비전 앵커

이자 CNN 특파원 출신인 마우리시오 푸네스 후보를 내세운 민족해방전선당(FMLN)에게 패하고 2009년 6월 정권을 넘겨 주었다.

IV.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황

1. 정치현황

2009년 3월 15일 51.3%의 득표율로 당선된 마우리시오 푸네스(Mauricio Funes)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 및 치안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둔 실용주의, 온건사회주의 노선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1년 5월 실시된 국정지지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으로부터 61%의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나, 산체스 세렌(Sanchez Ceren) 부통령 겸 교육장관을 중심으로 한 좌파노선의 민중해방전선당과의 정치적 입장 차이로 신정부 출범 이후 종종 갈등과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산체스 부통령이 친차베스, 친쿠바식 사회주의 노선 추구 발언 등에 기인한다.

〈 마우리시오 푸네스 정부의 위기극복방안(Anti-Crisis Plan) 〉

○ 치안부문

- 치안불안을 조성하는 범죄조직, 마약밀매단 및 동조세력 척결
- 산살바도르, 산타아나, 산미겔, 콜론, 소야빵고, 아포빠 등 6개 우범지역에 대한 군경 순찰 강화, 1천명의 경찰인력 증원, 통신 교통 및 전투력강화, 학교보호 작전추진, 지자체 폭력 방지위원회 설립 등

○ 경제부문

- 고용유지 및 창출, 경제위기로 취약해진 저소득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추진 및 강화
- 신규 고용창출을 위해 신규 도로건설사업, 도로 유지보수 및 상수도 사업 등 공공사업 확대 추진
- 빈곤지역 주민들을 위한 2만 5천세대 주택 건설 및 보수
- 중·소작농을 대상으로 농업 원자재 및 비료를 수입, 원가에 제공 등

자료: 엘살바도르 외교부

국제협력 측면에서도 푸네스 정부는 남다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신정부 출범 당시 국제협력을 전담하는 외교차관직을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대통령비서실장 주관으로 매월 한 두 차례 원조공여

국 회의를 개최하여 원조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지를 모으고 있다. 외국의 원조를 보다 효과적이며 조화롭게 국가발전에 활용하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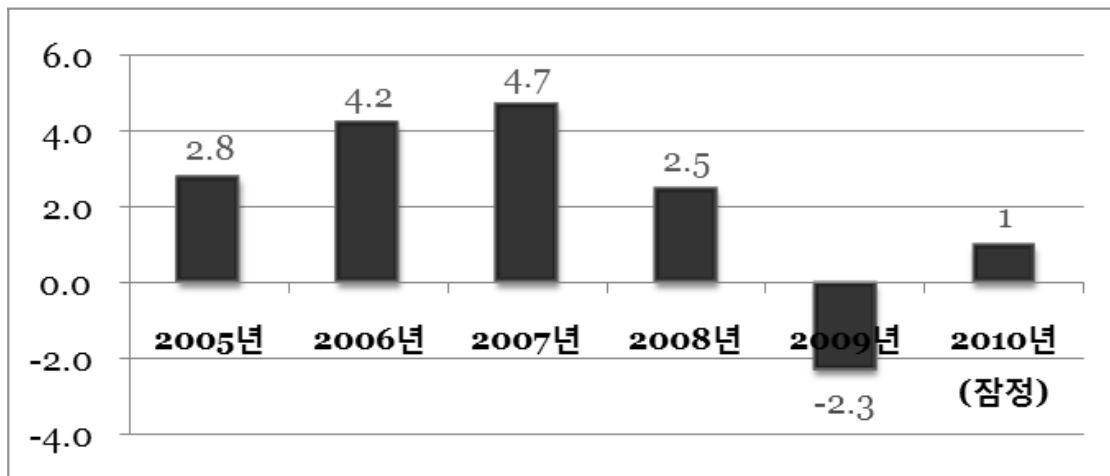
특히, 우리나라에 거는 국제협력에 대한 큰 기대를 반영하듯, 중남미지역의 KOICA 협력대상국 중 최초로 한-엘살바도르 무상원조기본협정이 2010년 8월 발효되어 파견인력의 신분보장, 면세혜택 등 원조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적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KOICA엘살바도르사무소는 국제기구로서의 법적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양국간 국제협력은 더욱 긴밀해 지고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경제현황

엘살바도르는 1980년 이래 플러스 성장을 거듭하였다. 최근의 경우를 보면 2005년 2.8%, 2006년 4.2%, 2007년 4.7%, 2008년 2.5% 등 꾸준한 성장율을 보였다. 그러나 2009년에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2.3%로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2010년에는 1%의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2〉 경제성장률(2005~2010)

(단위: %)



자료: 외교통상부

여타 중미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경제의 침체는 대미 의존도가 높은 엘살바도르의 수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농업 및 섬유봉제 등 전 분야에서 대외수출 부진을 기록하였으며, 이중 섬유봉제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특이한 것은 미국, 호주, 캐나다 등 해외에 거주하는 280만 명의 교포가 보내오는 송금액이 GDP의 16% 내외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엘살바도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 5명 중 1명 수준으로 해외송금을 수령하는 형편이다. 2010년 엘살바도르의 국가신용등급은 BB negative로 점점 하향 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엘살바도르는 미국, 멕시코, 칠레, 도미니카공화국, 파나마, 대만, 콜롬비아 및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캐나다와 협상 중이다.

3. 사회문화현황

엘살바도르의 주민 구성은 백인과 원주민의 혼혈인 메스티소가 90%를 차지하며,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프랑스 출신의 백인 9%, 인디오 1%를 차지한다. 인디오의 비율이 인접국인 과테말라 66%, 온두라스 15%보다는 낮은 편이다.

경상도 보다 작은 국토에 600만 명이 거주하다 보니 인구밀도가 중남미 최고 수준이다. 특히 3분의 1인 200만 명이 수도인 산살바도르에 밀집해 있다. 또한, 미국, 호주, 캐나다 등에 280만 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1980년대 내전을 피해 대부분 미국으로 이주를 하였고, 현재도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종교 구성을 보면, 가톨릭이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신교가 30%로 교세를 점점 확대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이라크 전쟁에 파병한 가장 친미적인 국가로 이는 전통적 친미 기조와 미국 내 불법체류자의 법적지위 확보 필요성 등 대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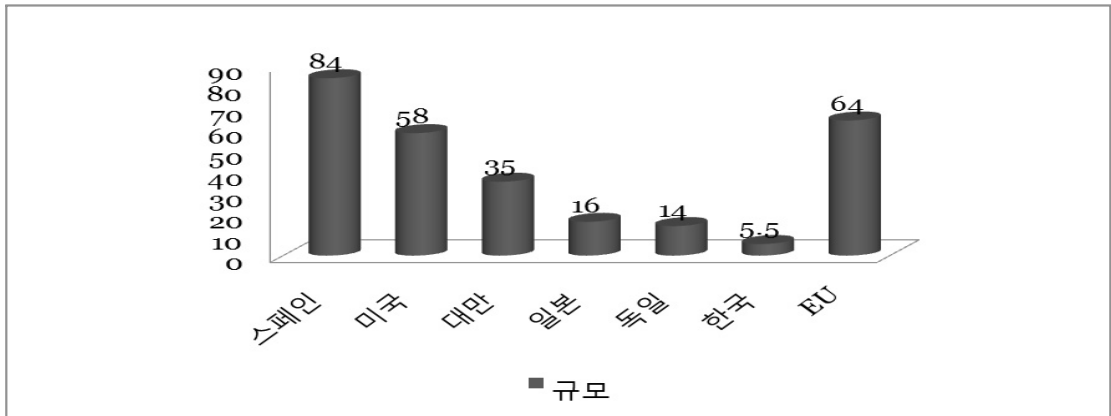
전통음식으로는 뿌뿌사(Pupusa)라고 옥수수 가루 또는 쌀 가루 반죽으로 호떡 모양으로 빚어 안에 치즈, 팔, 다진 돼지고기 등을 넣어 구운 것으로 아침 또는 저녁식사로 주로 먹는다.

V. 국제사회의 엘살바도르 원조동향

2009년-2010년간 엘살바도르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규모는 3억 달러에 달한다. 가장 큰 원조공여국은 스페인으로 8400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다음으로 미국, 대만, 일본, 독일 순으로 지원을 하였다. 우리의 원조규모는 550만 달러로 독일에 이어 여섯 번째로 많은 지원을 하였다.

〈그림 3〉 ODA수원규모(2009~2010)

(단위: 백만 불)



자료: DAC 통계

주요 공여국의 지원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스페인은 역사적, 문화적 연계를 토대로 개발원조의 우선지역으로서 중남미를 지원하고 있으며, 위 그림 5-1의 통계에서 보는 것처럼 제1의 공여국이다. 스페인은 민주적인 거버넌스, 인적자원 역량강화, 경제능력 향상, 지속가능한 환경보존, 여성의 자치능력 향상부문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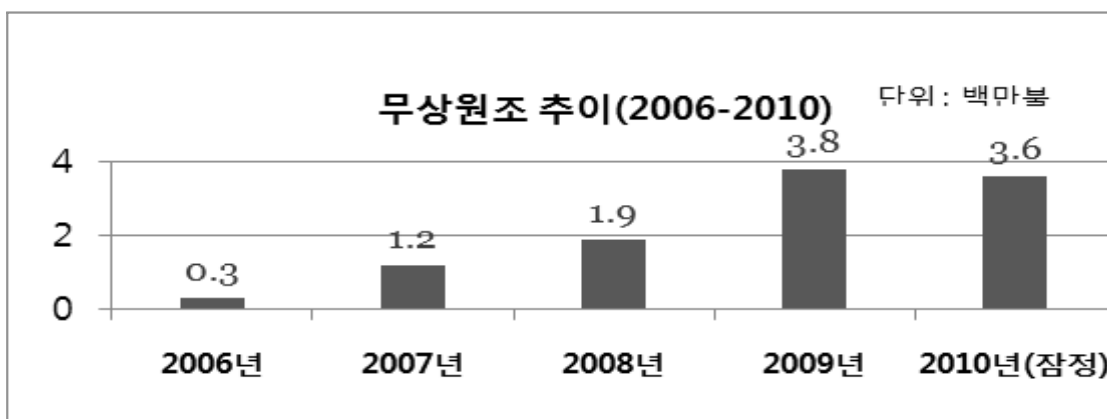
2000년대 들어 미국의 중남미 지역에 대한 원조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엘살바도르에서는 제2의 공여국으로서 민주적인 거버넌스 강화, 인적자원의 역량 증진과 경제발전 부문을 지원하였다.

중미지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오래 전부터 지속해 왔던 일본과 대만 역시 주요한 공여국이다. 특히 대만은 원조규모가 3500만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중남미 국가와의 외교관계 유지 및 중국의 대 중미 진출 저지를 위한 방편으로 원조를 활용하는 데 기인하고 있다. 일본이 명확한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면, 대만의 경우 좀 더 외교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일본은 지원규모가 감소하면서 효과적인 개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중미통합체제(SICA)와 같은 역내 지역협력체를 통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들 간 언어와 문화 등 정체성을 공유하며 지역 내 국가별 발전정도가 상이하다는 특성을 이용한 남남협력(삼각협력)등의 사업형태를 발전시키는 등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형태를 통해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다.

VI. 우리정부(KOICA)의 엘살바도르 원조동향 및 사례

엘살바도르에 대한 우리나라의 유상원조 실적은 없다. 1991년 KOICA 설립 이후 2009년까지 교육, 보건의료, 정보통신분야 중심으로 총 1300만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를 실시하였다. 특히, 2008년 3월 KOICA 엘살바도르사무소 개설을 계기로 2009년도 지원규모는 380만 달러로 배로 확대되었으며, 계속해서 그 규모가 유지되고 있다.

〈그림 4〉 무상원조 추이(2006~2010)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KOICA사무소는 엘살바도르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들어 엘살바도르에서 추진된 KOICA 프로젝트사업은 대부분 내용면에서 우리 정부차원 또는 중남미 지역에서 처음 추진되는 사업들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임산부요양소 건립사업’을 들 수가 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200만 달러를 투입해 진행한 사업으로 오지의 임산부들을 위한 산전 산후 조리원을 8개 지역에 지어 준 보건사업으로 KOICA에서 처음 시도한 사업이다. 오지의 임산부들이 출산을 앞두고 미리 일주일 전에 요양소로 와 출산준비를 하고, 출산 당일에 인근 보건소나 병원으로 가 안전하게 분만을 하고 다시 요양소로 돌아와 일주일 정도 산후조리를 하고 삶의 터전으로 가도록 도와줌으로써 모성 및 영아 사망률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0년 10월에 개원된 임산부요양소는 매월 평균 100명의 임산부들이 이용하는 등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 운영되고 있다. 참고로 엘살바도르의 산모 사망률은 10만명 당 71명이며, 신생아 사망률은 1000명 당 17명에 이른다.

다음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00만 달러를 투입해 추진한 ‘채소재배 생산성향상사업’은 중남

미 지역 최초의 KOICA 온실사업이다. 엘살바도르 농축산부 산하의 농축산임업훈련원 내에 한국형 온실 3개동과 현지형 온실 1개동을 건립하여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등의 고품질 채소를 재배하는 선진농업기술을 지역농민들에게 전수해 주고 있다. 일본이나 대만이 지어준 인근의 온실과는 기능면이나 규모면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준 높은 온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온실 근처에 있는 건물을 농업훈련센터로 리모델링하여 이론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론과 실습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구성하였다. 훈련원 측은 온실에서 재배되는 채소의 판매대금으로 온실 유지, 보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KOICA에서는 온실사업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뒷받침 하기 위해 채소재배 분야의 아국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그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밖에 1일 평균 13명이라는 높은 살인사건 발생율을 낮추고자 ‘치안역량강화를 위한 방법시스템 구축사업’에 200만 달러를 투입, 수도 산살바도르와 인근 산타 테클라시의 우범지역 28개 지역에 50대의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국립경찰청 내에 관계센터를 구축해 주고 있다. 동 범죄예방사업도 KOICA가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으로 범죄예방 효과를 높여 외국인 직접투자자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OICA 최초의 특수교육분야 협력사업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인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건립사업’에 235만 달러를 투입, 과거 여성형무소였던 낡은 특수학교를 철거하고, 현대식 특수학교로 건축해 주고 있다. 수도 산살바도르 내 지적장애학생이 양질의 현대식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젝트사업 외에 KOICA는 엘살바도르 공무원들을 매년 20명 이상 한국에 초청하여 농업, 보건, ICT, 치안 등의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전문기술과 경험을 전수해 주고 있다. 1991년 이후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온 엘살바도르 공무원들은 2007년 ‘한국의 친구들’이라는 연수생동창회를 결성, 매년 KOICA의 지원을 받아 체육행사, 식목행사, 한인업체 탐방, 한국영화상영회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여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고, 한국의 이미지를 고양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한편, 2011년 1월에는 최초로 한국해외봉사단원 5명이 현지에 파견되어 임신부요양소, 로잘레스 국립병원, 국가공공치안위원회, 엘살바도르국립대학 등에서 오지의 임신부를 돌보거나, 병원도서관 개설을 준비하거나, 한국어를 가르치는 등 관련분야 지식 및 경험을 현지인들과 나누고 있다.

Ⅶ. 대 엘살바도르 국제협력사업 추진방향

엘살바도르가 우리 정부의 중점협력대상국 리스트에는 포함되지 않아 원조규모를 적극 확대할 수 있는 실정은 아니지만, 전통적 우방국인 엘살바도르를 위해 우리가 향후 추진해야 할 사업 분야에 대해 살펴보겠다.

우선, 유엔의 천년개발목표(MDG) 중 엘살바도르가 가장 저조한 목표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 모성 사망률 감소 및 질병퇴치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와 농촌을 잇는 중급 종합병원을 건립하거나, 우리가 건립한 임산부요양소를 다른 오지로 확대 보급하는 보건의료사업이 긴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푸네스 정부는 2011년 보건예산으로 2010년 대비 4배가 증액된 규모인 1억 달러를 책정할 만큼 보건의료 환경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엘살바도르의 살인사건 발생률은 10만명 당 70명으로 중미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치안불안이 외국인 투자의 최대 걸림돌인 점을 고려하여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이나 감옥 수감자를 위한 재활훈련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3월 엘살바도르를 방문한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은 중미의 치안상황 호전을 위해 2억 달러를 치안분야에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중미 치안전략지원 공여국 국제회의’가 오는 6월 22일-23일 양일간 과테말라의 수도 과테말라시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엘살바도르의 국토의 90%가 재난 취약지역으로 총 인구의 95%가 잠재적 피해대상자인 점을 감안할 때, 재난방지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 또는 재난에 강한 교량 건설 등의 사업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난 2009년 11월 허리케인 IDA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지금까지 절반도 복구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 도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5월 방한한 마누엘 킨테로스(Manuel Quinteros) 공공건설장관은 교량건설을 위한 선진기술 전수를 KOICA에 요청한 바 있다.

Ⅷ. 맺음말

엘살바도르는 발전 잠재력이 큰 나라이다. 소득불평등, 치안불안, 기술력 낙후 등 다른 중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나, 앞서 언급했듯이 2009년 6월 푸네스 정부 출범 당시 국제협력 외교차관직을 신설, 하이메 미란다(Jaime Miranda) 차관이 수장을 맡아 운영하고 있으며, 월

1-2회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원조공여국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KOICA 협력대상국 중 중남미 최초로 2010년 무상원조 기본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엘살바도르는 우리의 발전 경험과 노하우 전수를 적극 희망하고 있으며, 우리측 지원에 대해 호평하고, 지속적으로 사의를 표하는 등 수원태세, 수원의지, 사업추진기반은 어느 중남미 국가보다도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2011년 4월 ‘성장을 위한 동반자관계(Partnership for Growth)’ 프로그램의 대상국으로 엘살바도르를 비롯한 가나, 탄자니아, 필리핀 등 4개 국가만을 선정하였으며, 향후 5년간 이들 국가를 집중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엘살바도르의 변화를 향한 의지, 투명한 재원운영 능력,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등을 감안한 결정인 것으로 평가된다.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자신들을 ‘뿔가르(Pulgar), 엄지손가락’이라고 부른다. 비록 다섯 손가락 중 가장 짧지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엘살바도르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다. 국토는 좁고, 인구는 많다. 천연자원은 부족하다. 또한 전쟁을 겪었다. 반면에 인적자원 하나만은 어디다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된다. 머지않은 장래에 엘살바도르가 제2의 한국으로 중남미에서 부상, 국제사회의 신흥 공여국으로 등장하리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김영철 · 구경모 · 김유경 · 박종욱(2010), 한 · 중미 개발협력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교통상부(2010), 중미통합체제 회원국(SICA) 및 기구현황, 외교통상부

중미 8개국 개황, 엘살바도르, 외교통상부

한국국제협력단(2011), 선진원조집행방안 모색을 위한 국별 비교연구, 한국국제협력단
엘살바도르 CP,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2005), 중미통합체제(SICA) 8개국 국가현황 및 진출 방안

2. 국내외 참고사이트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한국국제협력단, <http://www.koica.go.kr>

엘살바도르 외교부, <http://www.rree.gob.sv>

OECD-DAC, <http://www.oecd.org/dac/stats>